

바보통 보약통



金 初 蕙

〈詩 人〉

텔레비전을 바보통이라 부른다. 꽤 익살스러운 별명이면서 한편으론 서늘한 느낌이 드는 별칭이다.

텔레비전을 바보통이라 부르는 것은 텔레비전이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바보를 만드는 통」이라는 묘하게 꼬인 의미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텔레비전에 매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보가 되어 간다. 온 머리 속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득 채우고 있는 바보로...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고, 자기 판단을 빼앗기고, 자기 개성을 상실하는 희뿌연한 인간이 된다.

이는 얼마든지 가능한 위험성이다. 남자들의 경우는 좀 덜 하지만 여자들은 상당한 중독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흔하게 목격한다.

여자들 사이에 제일 빈번한 화제거리는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연속극일 때가 예사다. 이런 저런 얘기에 신바람이 나고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왈가왈부 입장난을 하는가 하면 의견이 대립되어 내기를 거는 상태로 비약하기도 한다. 그런 그들이 그날밤부터 얼마나 더 맹렬하게 텔레비전 시청에 열중할지는 묻지 않아도 족히 알 수 있다.

그 주부가 텔레비전 화면에 났을 빼앗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부의 임무에는 그만큼 소홀해질 것은 당연한 결과리라. 살림살이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텔레비전은 역시 바보통이다. 애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미운 흉물이다.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몸에 익히고 그것들을 다시 흉내내거나 표현하고 싶어 하는 애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애들의 말씨나 몸짓은 그대로 텔레비전이다. 어떤 경우는 귀엽고 감쪽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속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

이 없다. 특히 격이 떨어지는 코메디의 대사를 거침없이 사용하거나 천박한 몸짓을 그대로 흉내낼 때 누구든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리라.

물론 텔레비전을 보아서 얻어지는 좋은 점이 전혀 없지는 않다. 어린이 시간을 통해서 정서를 넓히거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한다. 태극기를 보기만 하면 차렷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려 붙인다. 그러나 이런 유익한 점 보다는 해독이 더 크기 때문에 난처한 것이다.

고약하고 상스러운 말버릇은 대개 텔레비전에서 익힌다.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꾸지람을 하면 텔레비전에서도 그러더라고 합리성을 내세운다. 물론 비판 판단력이 없는 어린 나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과히 바람직한 일은 아닐 듯 싶다.

가마 타던 사람이 갑자기 걸터다닐 수 없듯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몰아내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덜 바보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우선 방송국에서 프로그램구성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이 상스럽고 천박한 것으로 직결되는 안이성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전전하고 유익한 것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다.

다만 힘이 더 든다는 조건이 따르긴 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국이 지향하는 대중매체로서의 사명감을 경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투자하는데 인색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다음이 프로를 선별해서 시청하는 일이다. 먼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시간외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방법이다. 무척 어려운 일이겠지만 부모의 소망과는 차츰 거리가 먼 자식으로 변해 간다는 사실과, 끝내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빈 머리의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

험성을 전체로 하여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일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텔레비전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모는 그 시청시간을 대폭 줄일 일이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의 일이 발견되고, 집안 공동의 문제에 서로의 의견을 모을 수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병들었던 바보병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명의 발달은 신속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반면에 그만큼의 피해를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끼친다. 자동차의 매연이 그렇고 큰 공장들의 폐수가 그렇다.

텔레비전도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대신 우리를 바보스럽게 만들어 간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과용하면 치명상을 입게 된다.

텔레비전의 유죄도 이와 똑같은 것일테니 시청시간을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생활의 피로를 씻어내고 내일의 활력을 주는 「보약통」으로 만들 책임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구라와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에서는 텔레비전시청률이 5%가 넘으면 당국이나 방송국에서는 시청률을 낮추기 위해 고심조사 한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이 시간을 빼앗아 국민정서를 해치고 다른 의식을 마멸 시킨다고 생각하여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재미와 흥미를 빼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당국에서는 관심도 두지 않을 뿐더러 각 방송국에서는 시청률이 45%가 안되면 상대방송에 프로를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프로를 개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국은 팔을 걷어 부치고 장사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서나 정신적인 의식의 문제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형편이다. 이런 형편에 놓인 우리들이니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